

# 인도그림기행 22

그림·글 이호신

## 깨달음의 빛과 화장세계

(보드가야 대탑, 보리수 아래서)

보드가야(Bodhgaya)의 불교행사인 칼자차크라(Kalachakra) 주간을 알리는 야경사진이 현지 인도신문의 톱(Top) 기사로 실렸다. (The TIMES of INDIA 2003. 1.15) 현란하게 불을 밝힌 대탑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찬연하다. 그 빛을 향해 하루를 지새우고 동트자마자 마하보디 사원(Mahabodhi Temple)으로 향했다.

때마침 칼자차크라 행사(1.12~1.18) 중이어서 붉은 승복의 티베트 승려들이 불경을 이루고, 사원 입구엔 수많은 곁인과 좌편 상인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다. 티베트의 5종파중의 한 수장인 까르마파님이 설법한다 하여 그를 친견하려는 행렬이 끊었는데 서양인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띈다.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망명정부를 가져야 했던 티베트의 역사. 그들의 눈물겨운 삶과 달라이라마 생애를 다룬 영화 '쿤둔'을 몇해전 나는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보았다. 그런데 박해자와는 다르게 이 슬픈 티베트의 삶과 종교를 존중해주는 오늘의 인도는 넓은 아량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사실 모두 힌두교가 된 땅에 불교 유적지의 보호와 타 종교 행사를 크게 보도하고 간섭하지 않는 구석이 돋보인다.

보드가야.

고타마 싯타르타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곳. 가야(gaya)에서 니란자라강을 따라 남쪽으로 11km 정도의 위치에 마하보디사원의 대탑(52m)이 있고 싯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보리수와 금강좌(金剛座)가 놓여있다.

그 어느날 새벽이었다. 생사(生死)의 근본인 무명(無明)이 소멸되면서 동쪽하늘에는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다. 순간 싯타르타는 홀연 깨달음(正覺)을 이루어 붓다(Buddha, 진리를 깨친 사람)가 되었으니 형언할 수 없는 법열(法悅)에 겨워 세상을 향해 외쳤다.

"아!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의 길을 밟지 않으리니,  
이것을 번뇌의 마지막이라 말하리라."

오늘날 대탑의 위용과 거대한 보리수는 실제 옛것은 아니지만 붓다의 성불지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따르려는 승려와 신도들로 화염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대탑의 장식중에는 부처조각상으로 안치된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실제 대탑은 힌두사원의 양식을 수용한것이라 한다. 즉 B.C.250년경 아쇼카왕에 의해 건립된 사원은 그 후 많은 변모를 보이다가 무솔림 침공(A.D. 1158년)으로 밀립과 흩속에 파묻혔다. 그리고 최근 1884년 인도정부의 발굴로 재개되었고 1953년 '보드가야 사원 경역위 원회'가 발족되어 오늘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탑보다는 사원 입구에 부러진 아쇼카석주가 도리어 초기 불교의 유산으로 기려진다. 보리수 또한 세월을 거둬서 이교인들의 훼손과 수명을 다했으므로 그 손자나 무묘목으로 끈끈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 만개의 유행템프 일산화탄소 때문에 보리수가 서서히 죽어 간다하니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행사 물결은 이 같은 사정 속에서도 필러이는 오색 깃발아래 뜨거운데 그 찬란과 찬미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하심(下心)으로 더욱 빛난다. 곁들은 승복을 입은 티베트 승려들의 저 송고한 신심(信心)을 무엇

으로 형용하라.

아예 물병을 몇 통씩 곁에 두고 날랜지 위에 손가락지를 낀 채 행사 기간 내내 온몸을 던지는 티베트승들의 모습을 보니 왠지 눈시울이 뜨겁다. 무엇이 저토록 간절할까. 국도를 잃은 겨레의 애환이, 그들의 소망이 저 기도속에 담겨 있는 한 그들의 역사는 다시 씌어질 것이다.

행사장 주변은 2층의 난간으로 수많은 승려와 순례객이 대탑을 돌며 탑돌이 중이다. 또한 여러 양식의 작은 탑이 빼곡하고 보리수를 향해 절하는 승려들의 발원, 오색 깃발이 대탑을 가로 지르며 출렁이는 장면은 그대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이다.

한편 보리수 아래서 발견되는 불족석(佛足石)은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첫발을 내디딘 곳을 기념하여 새겨놓은 것이다. 그 대각(大覺)을 이룬 현장, 붓다의 발자취를 찾아 온 혜초스님은 각색에 겨워 5년 시기를 남겼다.

마하보리사를 이 지역민리가 멀다하지 않고 왔노라!

## 티베트 까르마파님 설법에 인산인해 타종교 배려하는 인도의 넓은 아량 대탑, 보리수 아래 진리의 화염물결

이제 저 커세에 있는 녹아원을 어찌 멀다 하리오?  
단지 걸린 길들이 험한 것이 근심일 뿐,  
가고자 하는 내 뜻은 바람에 휘날린 적이 없노라.  
아~ 아~ 팔성지의 스투파는 정말 보기 어렵구나!  
이미 겁탈당하고 불타버려 온전한 모습이 없네!  
어찌 계림(신라)에서 온 이 사람의 바램이  
다 성취되기를 바랄 것이리마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그대로 부처님 모습이 아니겠는가! (도율 김용옥 역)

비록 오늘의 대탑은 힌두의 양식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미 보드가야의 상징이요, 세계유산이 된 만큼 미래속에서는 불교 문화유산으로 더욱 존중 받을 것이 자명하다. 모든 대상은 의미 부여를 통해 되살려지고 그 가치가 존중되며 역사로 자리매김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각을 여미고보니 대탑은 하늘을 찌르고 우주의 정기를 하나로 모아내는 상징물로 우뚝 솟아있다. 그 조형물 아래 만인의 기도가 화염물결 이루어 붓다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마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도 대탑과 보리수를 바라보며 그 날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 기도를 향한 실천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언젠가 내게도 작은 깨달음이 도래(到來)할 그 날이 있을는지, 오늘도 그 그리움과 기다림속에서 먹을 갈고 붓을 든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더여행사



보드가야 화장계(華藏界) (196×140cm).

# “이 모습이 그대로 부처님”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 행운을 소원성취척척**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의 점수가 약 5~10%까지 격차가 나는 통계를 보면 실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들이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등을 차단하여 건강을 약화시키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는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꼭 곁에 지니고 시험을 치르면 금강의 강한 기와 마음의 안정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보관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회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애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농협  
전혀로 주수 성령을 알려주시던 우째국 풍기소로 전국여러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도봉구 관동로 177 (대행 010406호)

염주는 부처님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좋은 판매 합니다.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으로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불어넣으면 불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활명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불어는 20분 내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저체, 고혈압 현상,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뻣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며 몸이 개운해 집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기침이 줄어들어 집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회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식이 많이 떨어진 음이온은 광기속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cc당 약2,000배 정도 공급되는 음이온을 첨가한 은행석은 신경계, 혈관계, 근육계, 내분비계등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각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율신경의 기능에도 효과적이며 항상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항상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 합니다.특히 수면이 부족한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갱년기 주부님들,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금강덕터사 (02)722-1850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氣가발산되는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문양이 은은하게 떠 돌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수입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향상은 미륵불의 화현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이시며 포대화상 향로로 조각하여 낡은 사람 및 스님들께서도 소장 하고 있으며 불자들에게의 집이나 사업장에 두시면 화를 쫓고 복과 행운이 오며 사업도 번창하고 소원 성취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웃음을 주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베풀어주며 불심을 전파하고 포교 활동의 매체가 되도록 기원 합니다. 포대화상 향로는 정교한 조각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또한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복기어 주며 예복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포대화상 향로입니다.

◆크기:(대)가로26cm 폭15cm 높이 16cm 가격 155,000원 (소)가로20cm 폭12cm 높이 16cm 가격 95,000원  
(수공예품이라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3210-3170/농협 :1143-15-04974 승명화**